

# Korea Wine Challenge 한국 소비자에게 오래 기억될 생산자들

이번 호에는 지난해에 이어 Korea Wine Challenge(KWC)에 지속적으로 참가해주어 KWC이벤트를 빛나게 해주고 달리 그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국 와인 마니아들한테 깊이 각인시켜준 대표적 해외 생산자에게 이 글을 통해 고마움을 표시한다. 글 최훈 본지 발행인 사진 각 와이너리, Wikipedia

- ① Sileni Grand Reserve Lodge Chardonnay
- ② Sileni Cellar Selection Sauvignon Blanc
- ③ Cono Sur 20 Barrels Carmenere
- ④ Cono Sur 20 Barrels Chardonnay
- ⑤ Trivento Golden Reserve Malbec
- ⑥ Trivento EOLO



## 뉴질랜드 'Sileni Estates'

2006년 3월 24일, 소공동에 자리한 롯데호텔 연회장에서 매우 흥분되면서 낯선 광경이 연출되고 있었다. 두 번째로 개최된 'Korea Wine Challenge' 컴피티션에서 최종적으로 수상 와인 리스트가 공표되고 있었기에 그러했다. 본 이벤트 최대의 관심사인 영예의 트로피 수상의 발표가 있자 모두가 놀라면서 아연했다. 술한 참가 와인 가운데 뉴질랜드의 와인 메이커인 Sileni Estates Winery가 출품한 'Sileni Cellar Selection Sauvignon Blanc 2005'이 최상의 영예인 트로피를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이 무렵 한국시장에서는 아직 Sileni Estates의 브랜드가 낯설기만 하던 때였다. 비록 뉴질랜드의 소비농 블랑이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와인이긴 했지만, Sileni Estates는 2005년 처음으로 KWC 이벤트를 개최한 이래 오늘날까지 단 한 차례 빠진 경우 말고는 15차례나 지속적으로 참가해주어 추최 측인 <Wine Review>에서 무한한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Sileni Estates Winery는 1997년 Graeme Avery(현 회장)에 의해 설립되고 지금 160ha의 포도밭을 지니고 있다. 베이스는 북섬의 Hawke's Bay

에 두고 Marlborough 등지에 훌륭한 포도밭을 경작하고 있다. 이 집에서 내는 와인은 매우 전형적인 뉴질랜드 스타일이다 소비농 블랑(49%)이 주류를 이루고 피노 누아(18%), 샤르도네(12%) 등이 함께 뒷받침하고 있다. 이 와이너리는 한국 시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뉴질랜드의 대표 생산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 와인을 들여오는 '에노테카코리아(대표 김진섭)' 역시 탄실한 유통망으로 훌륭히 협업하고 있다. 이 기회를 빌려 지난날 롯데호텔에서 처음 만나 오찬을 가졌던 Graeme Avery 회장한테 안부를 전한다. 수입사 에노테카코리아

## 칠레 'Cono Sur' / 아르헨티나 'Trivento'

얼핏 타이틀만 보아서는 2개의 와인 생산자가 마치 파트너인 양 보인다. 실은 하나의 투자자로 연계되고 있다. 칠레의 Cono Sur가 아르헨티나의 Trivento를 투자해 설립한 와이너리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KWC에 Cono Sur가 13차례, Trivento가 15차례나 와인을 보내왔다.

Cono Sur는 1993년 창업되고 발 빠르게 1996년에 아르헨티나 멘도사에 Trivento를 투자 설립했다. 참고로 칠레의 와인 생산자는 2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하나는 1800년대 창업해 국제 와인 유통에 참여한 전통적 생산자그룹이다. 카르멘, 산 페드로 등이 이에 속한다. 다음 1900년대에 출현한 신세대 생산자에 바로 코노 수르를 비롯해 벤베스케로, 몬테스 등이 이에 속한다. Cono Sur는 여느 생산자보다 매우 도전적이며 혁신적인 면모를 보인다. 창업한 지 오래지 않아 아르헨티나의 페루아를 탐내서 트리벤토에 투자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또한 칠레 안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면모를 보인다. 모두가 이 나라의 기후 조건상 거의 불가능하리라 여겼던 피노 누아(Pinot Noir)를 받아들여 경작을 시도했다. 이로써 코노 수르는 칠레 최초로, 그리고 가장 오래된 피노 누아 포도밭을 갖게 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비오니에(Viognier), 게빌트트라미너(Gewürztraminer), 리슬링(Riesling) 등의 포도 종도 처음으로 이 나라에 들여와 뿌리를 내리게 했다.

Trivento는 칠레의 Cono Sur에 의해 1996년 아르헨티나 멘도사에 설립된 와이너리이다. 이 나라의 잠재성을 내다보고 여러 해 연구 끝에 투자가 이뤄졌다. Trivento의 의미는 '3개의 바람'이라는 뜻이다. 햇빛이 작열하고 높은 지대에 자리한 멘도사에 3가지 바람이 불어 와인의 생장에 큰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와이너리의 브랜드로 정했다고 한다. 오늘날 Trivento는 아르헨티나 안에서 최상위권의 와인 생산자로 자리매김했다. 한국 시장에서 Cono Sur의 브랜드 파워, 그리고 아르헨티나 Trivento의 브랜드 이미지는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비자들한테 깊이 각인되어 있다. 그리고 유통, 수입의 파트너인 신세계L&B와 롯데주류 또한 한국 시장에서 녹록지 않은 와인네트워크를 과시하고 있다. 해마다 6월 KWC가 개최될 무렵이면, 멀리서 눈 덮인 안데스산맥의 정기를 지니고 이곳에 찾아온 이들 생산자의 와인들은 KWC의 와인 셀러에서 거의 아침마다 필자와 눈인사를 나눈다. ㄱ

수입사 신세계 L&B(Cono Sur, 칠레), 롯데칠성음료(Trivento, 아르헨티나)